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0:14-21(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4 그러나 믿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15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16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18 그러면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19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20 그리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21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하루 종일 내
팔을 벌렸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은 믿음이 어디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17절)

→ _____

-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6-19절)

→ _____

-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 전하신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19~21절)

→ _____

- 당신은 믿음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요?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_____

-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0:14-21(이스라엘의 죄책의 불가피성)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그 소리는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시 19:1,4)는 시편 말씀은, 주님이 피조물 속에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무감각에서 깨어나도록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사도들에 의해 전파되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책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지금도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순종치 않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약속의 대상은 남은 자들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위기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변하시지 않겠지만 종일토록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여전히 오늘도 열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거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6. 기도